

지역 매 아리

김제시 소상공인 친절서비스 교육

김제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을 위해 지난 15일 김제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침체,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체 운영의 새로운 활력 모색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진행했다.

김제시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열악한 환경의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KBS국악한마당, 완주 공개녹화

흥겨운 국악의 선율이 완주의 밤을 수놓는다.

16일 완주군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봉동읍 문산공원에서 KBS '국악한마당' 공개녹화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소리꾼 남상일을 비롯해 고래야, 예결밴드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특히, 소리의 정석과 함께 국악의 변주까지 함께 어우러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녹화영상은 내달 29일KBS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고추농가 일손돕기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해 30여명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김제시 백산면 대양리 고추농가를 찾아 고추 출대기 작업을 돕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해준 직원들 덕분에 큰 감사를 받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제시보건소는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2회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극심한 소음 헬기 노선 취소하라”

##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시장과 논의 전주항공대대 항의 방문 강경 대응

전주항공대대의 헬기운항 소음이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전주시와 국방부에 헬기 노선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주항공대대가 올해 1월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이후 완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수시로 이서면 항공을 헬기가 저공비행하는 등 심각한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항공대대 헬기 비행이 하루 10회에서 20회에 육박, 반경 10m 안팎에 있는 이웃과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다.

완주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박성일 군수가 즉각 항공대대를 항의 방문하고 이서면 상공을 수시로 드나드는 현행 항공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면담을 하고 항공기 소음 문제를 논의했다. 박 군수는 또 16일 오후 4시30분에 전주항공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연일 초강수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군수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검토에는 완주군 상공을 비행하는 안이 아예 없었다”며 “주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완주군 상공에 단 한 대의 헬기도 운항해선 안 될 것”이라는 강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은 전주시가 최근 항공대대와 함께 3차 대책회의를 요청했지만 불참 통보를 하는 등 일방적인 완주군민 생존권 침해와 재산권 박탈에 대한 극도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놓고 있다.

완주군은 “장주노선(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한 노선)에 완주군 상

공을 완전히 빼는, 이른바 장주노선 변경이 아닌 축소 부분에 대한 논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주시와 국방부 등에 회의 불참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군은 또 지난 10일에 이어 15일에도 전주시와 국방부, 합동참모부 등을 대상으로 헬기 운항 장주노선 내용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완주군 정치권도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요청했으며, 완주군의회도 대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을 피력했다.

정치권은 “이서면에 있는 지방자치인재연수원 흉물기에 이어 이번엔 사전 협의도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헬기를 운항하는 등 완주군을 동네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력투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주민의 문화적 감수성 적서

### 금구 느티나무문화플 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김제시 금구초중학교(교장 정성섭) 학생과 주민, 이웃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년 수령의 느티나무그늘 아래서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열어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4일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봄 음악회 등 2일에 걸쳐 실시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꿈을 담은 열린 교실 추구하며 그동안 틈틈이 갖고 닦아온 학생들의 재능과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습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기획했다.

첫 날 행사는 고봉수 감독의 '튼튼이의 모험'을 상영했으며 둘째 날 음악회에는 금구초중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학부모의 색소폰 연주 인근 초중학교 현직 음악교사들로 구성된 현악연주 및 전문 보컬단의 초청 공연등으로 이루어졌다.

정성섭 교장은 “많은 주민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어 감사드리며, 더불어 행복한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재영 면장은 “아름다운 소재와 공간을 활용하여 유익한 행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구느티나무문화플은 금구초중학교 입구에 약 50여평 규모로 수리하고 있으며 1982년 9월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의 우거진 녹음을 배경으로 주민을 위한 야외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협조체계 구축

## 김제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청년창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와 청년창업 지원 및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6일 김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김제시 청년창업을 다각적으로 지원

하고 청년창업 붐업(Boom up)을 조성,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두 기관은 김제시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및 지원, 청년창업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확대, 기타 상호 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제공하고 김제시 청년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김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전문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창업 관련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진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김제시 청년창업의 씨앗을 뿌리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경제도약의 희망을 쏘아올리는 귀중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청년창업 지원 및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완주군은 마을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내 23개 마을공동체 대표자들이 모여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완주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 완주 23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창립총회

완주군의 마을공동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거듭났다.

16일 완주군은 마을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내 23개 마을공동체 대표자들이 모여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완주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창립총회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마을공동체 협의회 회원, 기타 마을공동체 대표 및 구성원, 완주공동체 지원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선언, 창립선언문 낭독, 창립 결과보고, 임원 및 정관 선출 등에 대한 안전심의,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완주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체성 회복 및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취지로 결성됐으며, 향후 완주군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용진 도계마을 위원장인 마을공동체 협의회 이일구 회장이 선임됐으며, 이사 6인, 감사 2인을 선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